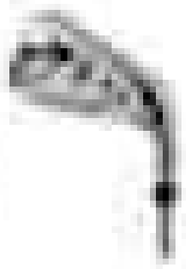
높이 떠가는 아름다운 궤적은 샘이 날정도.

장타본색 - inpresX